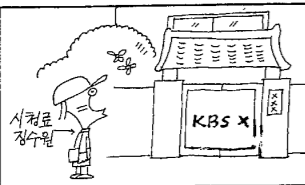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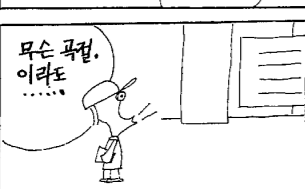




### 여로니모



그런데 MBC를 본다고? AFKN만



무슨 취미... 86,88 자원 봉사... 민중 서단

### 이달의 시

빛깔로 무한한 너. 아무리 높은 파도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내 안에 아득히 물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 너의 창문에 침묵이 춤을 춘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너. 빛이 고 마다하지 않는 너. 너를 보다가 내 무슨 유혹에 서인지 너를 짙 짙 상상해 본다. 파열음과 교열. 똑똑 떨어지는 성철. 열리는 역사. 그러나 현실의 눈앞엔 여전히 無斯의 結晶 그 선지 빛을 음을 삼키고도 백지. 백지는 자유의 極地이다. 無心과 無我의 끝이다. 나의 마지막 스승이다. 아무도 오르지 못한 원뿔의 高年층이다. 백지엔 무수한 원과 원심이 숨어 있다. 그러나 영원한 두려움의 인개가 서려 있다. <현대문학 4월호>

우리의 삶은 자기를 예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물들은 우리의 상식이 그것을 그

### 상식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시를 쓰는 기본조건

## 절대세계의 신비가 한장의 백지속에

成贊慶의 「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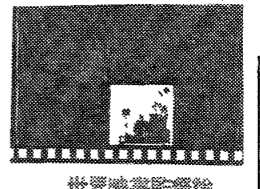
새로운 모습을 보게 해주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와 시인을 바라볼때 4월의 시단에선 成贊慶의 「백지」(現代文學)가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 시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백지속에 서 무한한 빛과 높은 파도와 깊은 골짜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의 눈이 새로 발견해낸 백지의 그 여러 내포적 모습은 여태까지 그 위에 무렇게 내려앉은 상식의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임을 분명하다. 이러한 눈을 가진 시인은 또 이 시의 말미에 「백지엔 무수한 원과 원심이 숨어 있다.」 백지엔 영원한 두려움의 인개가 서려 있다.」고 썼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온갖 소망과 그 소망 저

쪽이 있는 절대 세계의 그 신비까지도 한장의 백지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백지를 이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한 백지의 자리에만 붙박히 있을 리가 없다. 그 백지는 그야말로 오묘하고 신비한 그 무엇으로 변신하여 우리에게 그 다양한 의미와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있다. 이 시는 바로 그 결과를 언어화하고 있다. 어디 백지란 그렇다 할 것인가. 아무리 하찮게 생각되는 사물도 그럴 수 있고 사물의 총화인 세계 또한 그럴 수 있다. 변신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사물, 그 세계에 두루 걸쳐 있어 있는 상식의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은 시를 쓰거나 읽는 사람이 함께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성찬경의 이시 「백지」는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시에 있어서의 창조적 의미인 것이다.

李 炯 基 <문과대학교수·현대문학>

### 출판화제 世界映畫 監督論

셀룰로이드 필름의 영화관을 넘어서서, 일렉트로닉·메타인 T·V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전방 공간이 확산됨으로써 오늘날 영화작가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급속한 영상예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서적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교 교수



俞賢穆 교수

### 세계영화사조와 각국영화 특성 이해 작가의생애와 작품경향을 쉽게 풀이

인 유현목감독이 세계적인 유명감독을 엄선, 그들의 생애와 작가정신, 작품경향을 수록한 저서를 내놓아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의 초기 단계부터 오늘날까지를 총망라하여 각나라별(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일본 등)로 35명의 감독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세계영화사조 뿐 아니라 각국별 영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현목교수의 이번 「世界映畫 監督論」은 「한국영화 발달사」와 번역서 「기록영화론」에 이은 세번째 저서로 영화학자 및 학생과 관심있는 영화팬들을 고려하여 비교적 경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책 뒷부분에는 부록으로 「유현목감독특집」을 게재하여 유교수의 영화에 대한 업적과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이론서적중에서 감독 한사람의 개별적인 스토리를 하나의 책으로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문화부>

### 文化短信

韓國新具象會 韓日교류전 동덕미술관서 10일까지 <二科會·韓國新具象會 韓·日교류전>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동덕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극「관객모독」> 극단76, 23일까지 공간사랑서 <극단 76은 피터 한트케작 荷國연출의 연극「관객모독」을 오는 23일까지 공간사랑에서 공연하게 된다. <劇團가가「성막달라마리아」> 성신여대일 소속창「포커」서 극단 가가의 연극 「성막달라마리아」가 오는 30일까지 성신여대일 소속창 왕과 황에서 두

### 황토의 아들

고은 著 <한길사·277면·3,000원>

### 아리랑·2

남웨일즈 著 <한길사·184면·2,000원>

### 여자란 무엇인가

金容沃 著 <동문사·275면·3,800원>

### 1백3편 모두가 아끼는 나의 대표작 화려한 외형만 보고 영화인 되려는것은 위험 스토리중심 표현방식에서 추상·상징성 추구

1895년 12월28일 쿼에이리 형제가 프랑스 파리 캄핀 14번지에서 「시네마그라프」란 이름으로 30명에게 보여준 움직이도록 단 10개의 필름 단편이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영화의 기원이자 탄생이었다.

당시에는 예술·정치·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격동, 발전하는 과학의 일환으로 나타난 단순히 기술적인 연의 영화로 예술, 미학이란 거창한 이름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탄생한 영화는 기성에 술가를 사에서 생명이 없는 복제예술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쪽과 20세기로 치닫는 물질문명의 가장 선두에서 모든 예술을 종합할 수 있고 대량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미지를 전달하는 미래지향적 존재로 찬성하는 쪽과의 격돌속에서 발전해왔다. 연극과 영화를 비교해보면 대중을 위한 예술매체란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생, 본래의 자기명예를 지니고 있는 보수적인 연극과는 달리 영화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제성이 높을뿐 아니라 압도적인 대중매체로 대중의 교육과 선동에까지 이용되는 강력한 존재이다. 세계를 널리 보급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첫선을 보인 것은 김도산의 「의리적 구부」로 1919년 단성사에서 개봉, 상영됨으로써 한국영화의 첫 장을 열었다. 일제의 지배, 광복, 6·25를 거치며 1950~60년대 찬란한 꽃을 피웠던 한국영화는 80년대에 들어

### 7 영화

와 여러가지 외적인 상황으로 침체의 일몰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104번째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김수용감독(청주대학교수·59세)은 한국영화의 정체성을 「영화인들이 자기 자신과의 비정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시선, 제작비, 영화감독의 적의존관을 맞닥뜨리는 사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감독은 영화에 뛰어든 동기는 6·25 당시 장교로서 뉴스영화와 해외여행을 감독한 것이 계기였는데 그의 4번째 작품인 「꽃피는 날」이 가히 트랜드를 하려는 눈치를 보이고 본격적으로 극영화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한다. 「부자한만큼 회수한다」는 영화상의 대립축을 인정하면서 차별의 자신의 길을 찾아온 김감독은 지금까지 103편이 모두 아끼는 작품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족



김수용 <청주대학교수·영화감독>

### 아리랑

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의 노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또는 흥겨운 자리에서 떨려서 불려야 할 노래로 되거나, 게다가 편곡까지 해서 그 분위기가 어떻하든 된 것은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아리랑」은 愛國歌 못지않은 속연함과 우리 조상에 대한 경건함을 가져야 함이 당연하다.

### 이것이 곧 민족을 생각하는 근본이다

이것이 곧 민족을 생각하는 근본이며 우리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이다. 본래 「아리랑」이 오늘날 이처럼 변형해서 흥겨운 가락으로 불려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틀림없고, 이 잘못도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중보다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변형된 것이라고 여길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그것에는 무엇이든 불법적인 것도 合理化 시키려는 세태, 歪曲된 것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관용이란 관용, 이런 것

### 첨단의 메카트로닉스는 이제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내최초로 다목적산업용 로봇 NOVA10을 자체개발한 대우의 짧은 기술발전이 기술혁명의 꿈을 실현시키는 두뇌의 산실 대우중공업의 기술연구소이다. 이곳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일해줄 로봇을 제작하기 위해 밤을 뜨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국내 최초 다목적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 기술발전팀, 임재영씨(30세, 기계기술부 대리) 그는 대학졸업 후의 배려(신학재단의 장학금)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로봇 개발에 참여한 실무경력 4년의 젊은 임재영씨. 호리호리한 몸매에 구수한 경성도 사투리가 친밀감을 더해준다. <로봇 NOVA10은 메카트로닉스의 첨단기술을 기계와 전자가 결합된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의 첨단기술제품인 NOVA10은

5개의 동적축을 가진 다관절로봇으로 용접 및 조립, 운반 등 다목적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로봇에 관련된 기술적 및 자료가 부족해 물체는 물론 고도의 컴퓨터 기술이 필요한 제어장치개발에 더욱 어려움이 컸다」고 임재영씨는 개발초창기를 회고한다. 83년 1월에 실계를 시작하여 84년 1월 테스트를 해본 후 보완작업을 마친 NOVA10을 처음 공개한 것이 84년 6월 한국공작기계전. 그 후 실제현장의 적용을 통해 성능, 외관, 내구성의 개선은 물론 로봇 응용기술인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본격적인 상품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국산로봇의 미국수출이 가장 큰 보람이었죠> 자체개발한 로봇 NOVA10이 그 성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미국의 FA 성능 전문 업체인 오토메이커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에 수출된다. 「미국과 일본의 특무대연된 로봇시장에 첫 도전이죠. 로봇 NOVA10의 성능은 외국제품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 미국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국산로봇로봇로봇의 본고장인 미국에 수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는 임재영씨는 이제 어떤 첨단기술 제품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신호선지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기술혁명의 개가로 자부심 넘겨> 로봇개발로 활약이 계속되었던 84년 봄, 임재영씨에게는 꿈많은 신호선씨. 「아내에게 원망도 많이 들었죠. 그러나 모든 연구원들이 로봇개발에 여념이 없는데 혼자 신호선의 기분을 만끽할 수 없었습니까.」 특히 로봇의 미국수출 때는 두달만에 아내를 상봉하는 인태카운 일도 있었다. 이렇듯 평생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아내의 충격적인 말에 임재영씨는 적극적인 선물공세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제 첫들을 가진 아들을 둔 젊은 아내인 임재영씨는 「아름다운 연구원의 아내로서 깊은 이해와 격려가 고마웠고, 신호선씨를 장신없이 보냈지만 20개월만의 로봇 개발로 기술혁명의 개가를 올리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환한 웃음을 보인다. <공정자동화시대를 앞당길 로봇의 상품 다양화에 집중 노력> NOVA10의 자체개발로 로봇도 국산화를 실현한 임재영씨는 새로운 로봇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NOVA 10보다 기능이 단순한 저가형의 로봇과 다양한 기능의 센서감각을 지닌 지능로봇을 개발하여 국내의 자동화공장 시대를 앞당겨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를 이룩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고에 기여할은 물론 해외수출의 폭도 넓히겠다」고 젊은 기술엔지니어인 임재영씨를 필자는 인터뷰했다. 국내 로봇산업의 미래를 짊어준 그에게 새로운 첨단과학기술을 정복하려는 한 젊은이의 굳은 정념을 발견할 수 있다.

